

# 손흥민 EPL 100골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골을 달성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손흥민은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22-2023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팀에 1-0 리드를 안기는 득점을 터트렸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은 손흥민이 자신의 EPL 260번째 경기에서 넣은 100번째 골이다.

EPL에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한 건 손흥민이 34번째이며, 잉글랜드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14번째,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역대 최다다.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매슈 르티시에(은퇴)와 EPL 통산 득점 공동 33위로 올라섰다.

2015년 8월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보내는 8번째 시즌에 이 기록을 썼다.

2015년 9월 20일 EPL 데뷔골을 터트린 뒤 2757일 만에 100골(50도움)을 달성한 것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41골)을 포함하면 유럽 정규 리그에선 총 141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의 EPL 첫 골은 2015-2016시즌 크리스털 팰리스와 6라운드에서 나왔다.

토트넘 이적 후 두 번째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22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까지 세도했고, 강력한 왼발 슈트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첫 시즌 EPL 28경기에서 4골을 넣은 손흥민은 2016-2017시즌 14골을 작성하는 등 2021-2022시즌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왔다.

EPL 데뷔 이듬해 리그 10골을 돌파했고, 2017-2018시즌에는 12골을 더해 30골을 채웠다. 2018-

브라이튼전 전반 10분 선제골

아시아 선수 역대 최초 기록

260번째 경기...50 도움도 달성

2019시즌 역시 12골을 기록한 그는 2019-2020시즌(11골)엔 리그 통산 50골도 넘겼다. 그의 EPL 50번째 골은 2020년 2월 16일 애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

손흥민이 첫 골부터 50골을 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년 5개월이었다. 남은 50골을 채우는 데는 약 3년 2개월이 걸렸다.

2020-2021시즌 리그 37경기에서 17골을 작성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한 손흥민은 2021-2022시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EPL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 35경기에서 23골을 폭발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등극한 것이다. 살라흐와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던 손흥민은 지난해 5월 23일 노리치시티와 리그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려 '골든부트'를 거머쥐었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EPL 득점왕을 차지한 건 손흥민이 최초로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한국 축구 선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17골) 기록도 넘어섰다. 아시아 선수의 유럽 프로축구 1부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21골)도 새로 썼다.

리그의 23골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의 1골을 더해 공식전에서 총 24골을 넣은 손흥민은 2020-2021시즌에 세운 개인 최다 득점 기록(리그 17골·공식전 전체 22골)을 모두 재차 경신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 시즌에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앞으로



손흥민(토트넘)이 8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골을 달성하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골을 더하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103골)와 EPL 통산 득점 공동 32위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손흥민의 100골 중 최고의 골로 꼽히는 건 단연 2019년 12월 8일 번리전에서 나온 '70m 드리블 원터골'이다.

당시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그는 혼자 약 70m를 내달렸고, 번리 선수 6명을 따돌리며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트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로 손흥민은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기도 했다.

손흥민은 100골 중 55골을 오른발, 41골을 왼발

로 넣었고 머리로 4골을 넣었다. 페널티 득점은 1골에 불과하다. EPL에선 총 3번의 헤트릭을 기록했는데, 2020년 9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한 경기 최다인 4골을 넣었고,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애스턴 빌라, 레스터시티전에서 3골씩을 몰아쳤다. /연합뉴스

## KIA 안방 개막전 '구름 관중' 두산에 1승2패 '루징 시리즈'



KIA 타이거즈가 안방 첫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남겼다.

KIA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2-3 재역전 패를 당했다. 8일 고종욱의 대타 끝내기 안타로 1승은 만들었지만, 앤더슨이 7일 홈 개막전에서 7.1이닝 3실점(2자책점)의 패전 투수가 되는 등 홈 오프닝 시리즈에서 1승만 기록했다.

워닝 시리즈를 놓고 벌인 3차전, KIA가 10개의 잔루를 남기면서 승리를 내렸다.

1회초 KIA 선발로 나선 메디나가 양석환에게 홈런을 허용했다. 2사에서 조구로 선택한 150km 직구 가 좌중간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가 됐다.

1회말 KIA도 득점 기회를 맞았다. 1사에서 이창진이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소크라테스의 타구가 3루수 허경민의 키를 살짝 넘어 떨어졌다. 하지만 최형우의 땅볼 타구가 1루수 앞으로 향했고, 2루로 향하던 선행주자에 이어 타자 주자 최형우마저 아웃되면서 득점 없이 1회가 끝났다.

홈런은 맞았지만 메디나는 빠른 템포로 아웃카운트를 채워가면서 두산 선발 박빈과 팽팽한 투수전을 전개했다.

박빈에게 막혀있던 KIA 타선이 5회 상대 실수로 점수를 만들었다.

1사에서 김호령이 좌측 선상 타고 흐르는 2루타로 출루했다. 주효상의 볼넷 뒤 김규성이 헛스윙 삼진으로 풀러났지만 박찬호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이어 이창진의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했다. 3루 땅볼로 이닝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허경민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김호령과 주효상이 홈을 밟아 2-1이 됐다.

하지만 6회초 다시 KIA가 리드를 내렸다. 메디나가 선두타자 양석환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김재환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양의지를 3루수 파울 플레이로 처리한 뒤에는 로하스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강승호와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좌중간 2루타를 맞으면서 2

-3이 됐다.

KIA는 6·7·8회 모두 선두타자가 출루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6회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최형우는 이어진 폭투 때 3루까지 향하다가 태그아웃됐다. 주효상이 1루수 포구 실책으로 나간 7회말에는 김규성의 희생번트 뒤 후속타가 불발됐다.

8회가 가장 아쉬웠다.

소크라테스의 좌전안타를 시작으로 최형우의 볼넷과 황대인의 내야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하지만 류지혁, 대타 고종욱의 삼진 뒤 한승택의 유격수 땅볼로 득점 대신 잔루 3개만 남았다.

9회에는 2사에서 이창진의 내야 안타가 나왔지만 소크라테스의 헛스윙 삼진과 함께 2-3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한편 7일 홈개막전을 시작으로 9일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주말 3연전에 4만3323명(평균 1만441명)이 입장해 다시 찾아온 그라운드 의 봄을 즐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장의 봄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9일 휴일을 맞아 많은 관중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야구를 즐겼다. 7일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9일까지 진행된 KIA의 오프닝시리즈에 4만3323명이 입장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툽 타자와 마무리 투수 ... KIA, 시작과 끝이 고민

김도영 부상에 박찬호 부진

정해영 페이스 떨어져 속제

'호랑이 군단' 이 시작과 끝을 고민하고 있다.

주중 KT 위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비를 만난 KIA 타이거즈는 7일 두산 베어스를 시작으로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벌였다. 결과는 1승 2패, 루징 시리즈. 8일에는 9회말에 타진 고종욱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는 거뒀지만 이 경기의 뒷맛도 개운하지는 않았다.

시작과 끝이 흔들리면서 부상 약재에 시달리고 있는 KIA에 톱타자와 마무리 고민이 더해졌다.

KIA는 9일 두산전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찬

호를 1번 자리에 배치해 이창진과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박찬호는 4월 1·2일 SSG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연달아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기본 좋은 출발을 했다. 2번 김도영과 함께 위협적인 테이블 세터로 상대를 괴롭혔지만 이내 감이 식었다.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박찬호는 1번 타자로 15타석에 들어서 안타 하나, 볼넷 2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김중국 감독은 '부상 여파'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타순의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호는 손목 통증으로 스프링캠프에서 기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오기나와 캠프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등 실전이 부족했던 부분이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김중국 감독은 9일에도 경험 많고 기동력 좋은 박찬호를 1번에 배치해 5타석을 소화하게 했다. 하지만 한 차례 출루에 그치는 등 결과가 좋지 못했던 만큼 타순을 고민하게 될 전망이다.

마무리 정해영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해영은 지난 2일 9-4의 넉넉한 점수차에서 SSG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을 소화했다. 2사에서 최정에게 솔로포는 맞았지만 4타자만 상대하면서 첫 경기를 끝냈다.

이어진 범비에 휴식이 길어졌던 정해영은 8일 두산전에서 시즌 두 번째 등판에 나섰다.

6-4로 앞선 8회초 2사에서 한 박자 빠르게 투입된 정해영은 2·3루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9회 시

작과 함께 강승호에게 좌전안타를 내줬고, 이어 김재환에게 동점 투런을 맞았다.

9회말 1사 만루에서 고종욱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불륜세이브에 이어 승리를 가져갔지만, 벤치의 고민을 더하게 한 장면이 됐다.

일단 정해영은 9일 세 번째 등판에 나서 감을 조절했다. 2-3으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은 1사에서 2루수 김규성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낸 뒤, 허경민에게 우전안타까지 맞았지만 양석환을 상대로 병살타를 뽑아내면서 실점 없이 등판을 끝냈다.

KIA는 시범경기에서부터 정해영의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자 '폴런 B'를 마련해두기는 했다. 하지만 마무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정해영이 안정감 있게 뒷문을 책임여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두산과의 3연전에서 새로운 속제를 안게 된 KIA가 어떤 답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